

고용보험기금 바닥 굶고있다

가입자 줄고 상실자 늘는데 올 지출은 20조
올 -10조, 작년 -2조... 금액·기간 늘어 '적자'
모성보호·고용유지 등 지원사업비도 급증

4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등 해마다 적자에 허덕이
던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고용보험
기금은 7조35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10조2544억원에서 2년새 3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고용
보험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급액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확
대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
~270일로 대폭 늘렸다.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규모도 확대해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상
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 다시 250
만원으로 늘렸다. 육아휴직 급여소득대
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고 상한액
도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기금을 운용하면서 2018년 2조2200
억원 가량을 손해본 것도 타격이 컸다.
고용보험기금은 2016년부터 전액 위탁
운용중인데 당시 주식투자 실패로 국내
-16.8% 국외 -6.3%의 수익률을 기록했
다. 고용보험 적자의 가장 큰 비중은 역
시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
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재정 전망치에서 올
해 수급자를 134만명으로 예상했지만 1
분기 수급자만 6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
급여지급액은 1월 7336억원, 2월 7819
억원, 3월 8982억원, 4월 9933억원으로
매월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상한 올해 실업급
여 총 지급액 9조5000억원은 턱없이 모
자랄 전망이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소 12조원,
상황에 따라서는 15조원을 넘을 수도 있
다”며 “모성보호지원사업과 고용유지지
원 등 각종 사업예산을 포함하면 20조원
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더 쪼그라
들 전망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수
입 11조8000억원에 14조원을 지출하면
서 2조1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하지만 올해는 당초 예상 수입 14조
3000억원에 미달할 가능성이 크다. 고
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코로나19 타격
으로 한풀 꺾였기 때문이다.

4월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는 1377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3000명
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 3월 20만명
대로 떨어진 가입자 증가폭이 한달만에
10만명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작년에는
매달 40만명 이상 늘어났다.

반면 고용보험 상실자는 56만9000명
으로 지난 1월 87만5000명이 자격을 잃
은 이후 매달 50만명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고용보험 적자가 가중될
경우 기금 7조3500억원은 연말이면 동
아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5년 9100억원 흑자, 2016년 1조3800
억원 흑자, 2017년 6800억원 흑자 등 차
곡차곡 쌓여온 공간이 3년만에 바닥을
드러내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특수고용직 종사자,



재난지원금 효과? 장 섰네~ 긴급재난지원금 방문 신청이 시작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에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한 상인은 “지난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되면서 조금씩 시민들이 오고 있다”며
“빨리 시장이 다시 정상화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창희 기자 jaykwon@newdailybiz.co.kr

문화·예술인, 배달직 등 고용보험 미가
입자를 대상으로 의무가입 범주를 확대
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기관·기업과 용
역계약을 맺은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의
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
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예술
인 외에도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
장 캐디 등 특고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
보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230만명

에 이르는 이들을 의무가입시킬 경우
기금수입은 약 1조원 가량 증가할 전망
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는 “고용복지에 대한 수급여를 많이 주
고 오래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재
정부담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재
정을 고려해서라도 적정선에서 최소한
의 금액과 지급기간을 고민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안종현 기자 ajh@newdaily.co.kr

기업 대출 한달새 14조 급증

코로나 사태로 부실화
“좀비기업부터 추려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 규모
가 천문학적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
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4월 말 기준 463조9,291
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8조
4,379억원 늘어난 수치다. 관련 통계
로 보면 2015년 9월 이후 최대 증가폭
이다.

중소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 부
문이 5조1219억원 급증했다. 전체의
61%가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분이다.
시중은행은 지난해 1일부터 영세 소상공
인에게 3,000만원까지 연(年) 1.5%
로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다. 개인사업
자 대출 증가폭도 2015년 9월 이후 최
대 수준이다.

5대 시중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4월 말 기준 88조5074억원으로 집계
됐다. 전월 대비 5조8952억원(7%) 증
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기업
의 경우 신규 대출도 있지만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출한 자금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통상 대기업은 회사채 등을 통해 금

융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한다. 하
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회사채·기업어
음(CP) 발행이 어려워지자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자금을 확보했다는 뜻
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합한 전체 기
업대출은 지난해말 14조2,432억원 늘어
전월(13조4,568억원)에 이어 사상 최
대 증가액을 경신했다.

문제는 건전성이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 증가액 만큼이나 늘고 있는 연체
율을 세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 장기화 사태가
맞물려 경제적 충격은 하반기까지 이어
질 전망이다. 소비심리 회복도 더디기
때문에 기업들은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은행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
는 상황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정책
적으로 은행들에게 대출 확대를 요구
하지만 바닥을 모를 정도로 경기가 악
화될 경우 부실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
다.금융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
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는 무조
건 대출을 하라고 은행을 압박할 게 아
니라 부실화 가능성이 큰 좀비기업(한
계기업)을 구분해 우선적으로 구조개선
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정현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

1~4월 실직자 208만명 ‘역대 최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

올 1월부터 4월까지 실직자 규모가
200만 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를 기록
했다.

17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통
계청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4월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
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직자 수는
207만16000명으로 조사됐다.

이 208만 명에 가까운 실직자 수는
올해 1월부터 4월 동안 특정 날짜에 실
직했고 실직 상태가 4월 조사 시점인 4
월 18일까지 이어진 인원이다.

비자발적 실직자도 104만5000명으
로 역대 최대였다. 결국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직자 수와 비자발적 실직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훨씬 뛰어넘
는 고용대란이다.

이 중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를 선택한 이가 33만5000명, ‘일자리
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이 34만4000
명으로 가장 많았고 ‘ 명예퇴직·조기퇴
직·정리해고’와 ‘직장 휴·폐업’을 택한
이가 각각 20만5000명, 16만 명으로
뒤를 이었다.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정
리해고를 당한 사람들도 작전 최고치
였던 지난 2009년 보다 두배가 가까이 늘
며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다. 2009
년에는 11만2000명 수준이었다.

직장의 휴업과 폐업으로 발생된 실
직 또한 2009년 8만3000명보다 배로
늘며 처음 10만 명을 넘어섰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1월부터 4월
까지 전체 실직자(207만16000명) 가운
데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서 85만
5000명이, 5~9인 사업장에서 45만 명
이 각각 일자리를 잃었다. 같은 기간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도 14만6000명
으로 집계됐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원숭이, 코로나 면역 생겨... “백신 희망”

2차 자연 감염서 무증상
백신 후 항체 수준 물질 형성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면역력 실험 2
건이 모두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보
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 보도에 따
르면 이날 ‘사이언스’지에는 히말라
야 원숭이를 대상으로 진행된 두 건

의 코로나19 면역력 실험 결과가 게재
됐다.

하나는 9마리의 어른 원숭이를 대상
으로 자연 감염에 따른 면역력을 실험하
는 것이었는데, 원숭이들은 코로나19 증
상을 보인 후 항체를 얻었고 며칠 후 회
복했다. 이들 9마리는 그로부터 35일 후
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됐는
데, 이 두 번째 감염에서는 거의 증상을
보이지 않거나 증상이 아예 없었다.

연구진은 이 ‘항체 수준의 물질’에

대해 “바이러스로부터 회복한 사람
에게서 보이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
며 “사람에게도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
하는 데 있어 희망을 안겨준다”고 말
했다.

연구진은 다만 “인체용 코로나19 백
신의 면역력 지속성과 최상의 백신 플랫
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
혔다.

이번 연구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
드 의대의 임상 수련 병원인 ‘베스 이스

라엘 디코네스 메디컬 센터(BIDMC)’의
바이러스·백신 연구센터에서 진행했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Inside	
재난지원금 사용처	▶2~3면
미·중 2차 무역 분쟁	▶4면
애플 크리에이티비티	▶14면
충천 트레킹	▶18면



2020년

칸은 못가도 라이언즈 트로피는 받자

어워드 출품은 계속됩니다.

2020년 작품

출품 자격요건:
2019년 3월 1일 ~ 2020년 5월 31일

1차 마감:
2020년 6월 30일까지

최종 마감:
2021년 4월 15일까지

2021년 작품

출품 자격요건:
2020년 6월 1일 ~ 2021년 4월 30일

최종 마감:
2021년 4월 15일

※칸 라이언즈 출품 자격요건 및 출품비용은 칸 라이언즈 한국사무국 홈페이지 참조
www.canneslions.co.kr
webmaster@canneslions.co.kr